

나주시 노후 영산대교 재가설 본격화

반세기 넘는 노후화로 통행 제한
내년 예산안 실시설계비 10억 반영
안전·경제성·경관 고려 계획 수립

나주시가 53년 된 노후 교량인 영산대교의 전면 재가설 사업에 속도를 낸다.
나주시는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영산대교 재가설을 위한 실시설계비 10억원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국도 13호선을 잇는 주요 교량인 영산대교는 1972년 준공된 이후 반세기가 넘도록 사용되며 구조적 피로 누적과 시설 노후화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2019년 정밀안전진단에서는 D등급(미흡) 판정을 받아 2020년부터 하중 20.1t 이하, 속도 50km 이하, 높이 3m 이하 제한을 적용하는 등 관리가 강화된 상태다.

나주시는 내년 영산대교 관리 주체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2026년부터 구조·노선 검토, 교통·환경영향평가 등 전문적인 실시설계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재가설이 추진되면 상습 정체 해소, 안전성 확보, 물류 이동 효율 개선 등 도심 교통 전반의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나주시가 영산대교 재가설을 위한 실시설계비로 국비 10억원을 확보했다. 하늘에서 바라본 나주 영산대교. <나주시 제공>

나주시 관계자는 “영산대교는 시민 생활과 산업 물류에 필수적인 기반 시설로서 재가설 필요성이 오랫동안 제기돼 왔다”라며 “설계비 확보를 계기로 사업 추진이 본격화된 만큼 향후 공사비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담양군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 35.6%

호남통계청과 협력 노인 통계 공표

데이터 기반 노인복지 정책 추진

담양군이 호남지방통계청과 협력해 노인등록통계를 처음으로 공표하며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정책 기반 마련에 나선다.

담양군은 실효성 있는 노인복지 정책 마련을 위해 호남지방통계청과 협력해 ‘2025년 담양군 노인등록통계’를 공표했다.

통계에 따르면 2024년 12월 기준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35.6%로, 전국 평균(약 20%)을 크게 웃도는 초고령 지역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 공동체 유지와 복지정책 방향이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교한 통계 기반을 갖춰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노인등록통계를 최초로 구축하게 됐다.

이번 통계는 노인 삶의 질을 구성하는 인구·가구, 경제, 일자리, 복지, 건강 등 5개 부문 60개 항목으로 세부화했다. 4개 권역별로 비교 분석이 가능하도록 구분에 지역별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정책을 수립하는 기반이 될 전망이다.

군은 이번 통계를 계기로 노인 돌봄 공백 해소, 사회참여 확대, 건강관리 체계 강화 등의 중점과제를 추진하고, 변화 추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데이터 기반 정책’을 실현하고자 한다.

정철원 담양군수는 “이번 통계는 지역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핵심적인 정책 나침반”이라며 “앞으로도 통계 기반 행정을 강화해 어르신들이 더 안전하고 존엄한 노후를 누릴 수 있는 복지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



장흥군, 수질관리 2개 분야 ‘우수기관’ 선정

영산강환경청·전남도 평가

장흥군이 최근 수질관리 관련 2개 평가 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 주관하는 ‘영산강성진강수계관리기금 성과평가’에서 ‘매우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기금사업에 대한 성과를 평가해 기금의 관리·운영 내실화를 점검한다.

장흥군은 해당 분야에서 계획수립의 적정성과 예산집행의 효율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전남도 주관 수질오염총량관리 분야에서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사진>

총량관리제는 목표수질 달성을 위해 지역별 허용부하량을 설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오염물질 배출량을 관리하는 제도다. 허용부하량을 초과하면 개발행위가 제한되기 때문에 지역 환경관리 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장흥군은 탐진강 수질개선을 위해 부서 간 협업 체계 구축,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등 체계적인 수질관리를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장흥군 관계자는 “이번 성과는 지역수질을 지키기 위한 행정의 노력에 주민들이 함께해 준 결과”라며 “앞으로도 탐진강 수질 보호를 위해 실효성 있는 관리와 개선 노력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 중부취재본부장 kykim@

장성군, 월남전 참전탑 건립 국비 2억원 확보

장성군이 추진 중인 ‘월남전 참전탑 건립사업’ 예산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비 2억원을 확보한 장성군은 총사업비 7억원을 투입해 장성공원에 기념 석탑을 건립한다. 2026년부터 사업 추진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앞서 장성군과 대한민국월남참전자회 장성군지회는 월남전 참전자들의 애국정신을 기념하기 위

해 2023년부터 매년 보훈부에 참전탑 건립 신청서를 제출했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월남전 참전탑 건립 확정을 위해 노력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하다”라며 “앞으로도 국가 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강진군 빈집재생 페어

19일까지 포럼·빈집투어

강진군이 오는 19일까지 병영면 한골목길 일원에서 강진 빈집재생 페어를 운영한다.

강진 빈집재생 페어는 ‘다시 사는 집, 다시 살아나는 마을!’이라는 주제로 버려진 빈집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강진군에 맞는 빈집재생 모델을 찾고자 기획됐다.

약 한 달간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병영면 도시재생사업으로 마을 내 빈집과 유휴공간 15개소를 대상으로 운영한다.

정책홍보를 비롯해 로컬콘텐츠를 접목한 문화를 체험하고, 빈집 투어 등을 통해 지역을 경험하는 공간으로 재생시켰다.

지난 3일에 개최된 ‘빈집재생 현장포럼’은 전남도 내 지자체 관계자와 주민 80여명이 참석했다. 빈집 안내 투어에도 현재까지 70여 명이 다녀갔다.

빈집 작가 프로그램에 참여한 정경훈 웹툰작가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강진을 알게 되었고, 단순히 빈집을 머무는 것이 아닌 마을을 알아가며 존중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라며 “다시 꼭 강진을 찾아갈 예정이며 기회가 된다면 병영을 소재로 작품 활동을 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i@



함평군 관계자들이 과수 잔가지와 고추·참깨 등 발작물 잔재물을 수거, 파쇄 작업을 하고 있다.

함평군 영농부산물 처리 산불·미세먼지 예방

1억원 들여 수거·파쇄 지원 나서

함평군이 영농부산물로 인한 산불 발생과 미세먼지 증가를 예방하기 위해 ‘2025년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함평군에 따르면 지역 농업인과 협력해 올해 2월·3월과 11월·12월 두 차례에 걸쳐 약 60ha 규모의 영농부산물 처리 작업을 진행하며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함평군은 최근 고령 농업인의 증가로 영농부산물 소각이 잦아지며 산불 위험이 커지는 상황에서, 산불 발생·미세먼지 증가·병해충 월동 확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총사업비 1억원(국비 4000만원, 군비 6000만원)을 투입해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지원에 나서고 있다.

특히 함평군농업경영인영농조합법인이 사업에 참여해 감·배·대추 등 과수 잔가지와 고추·참깨 등 발작물 잔재물을 농가 현장에서 직접 수거·파쇄하

며 영농부산물 처리에 도움을 주고 있다.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주변 농가에도 수거 활동을 지원하며 지역 전체의 깨끗한 농촌 환경 조성에도 앞장서고 있다.

이에 따라 불법 소각 사례가 눈에 띄게 줄어들어 여름과 가을철 산불 예방 효과가 컸으며 미세먼지 저감 등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 개선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또 잔재물 방치로 인한 병해충의 월동·번식 가능성도 크게 줄어 앞으로 작물 생육환경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문정모 함평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올해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농업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소각 없는 깨끗한 농촌 환경 조성과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예농향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25년 12월호

2025년 11월 30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특집 '문화와 함께' Adieu 2025

- 세밀 감성 짙은 송년 무대들
- ‘안방 문화송년회’ 콘텐츠들
- 그림의 위로, 미술관 송년회
- 자분하고 따뜻하게, 문화송년회

남도 제철로드

일상 내려놓고
자연 만나러 가는 곳
생태 문화의 도시

문화 화제

책방들이
다정하게 어깨 맞댄
고창 서점마을

송년기획-문화계 결산

2025 문학·전시·공연

2025

수목과 디자인
국제비엔날레 눈길

예향과 함께하는남도투어②

남도의 겨울 빛으로 물들다

복합문화공간, 도시의 미래가 되다④

서울 예술의전당

전시·공연·애로가들이 사랑하는
수준 높은 예술의 집

예향이 만난 이 사람
‘시노래’ 창작자로 돌아온
밴드 ‘산울림’ 삼형제의 둘째 김창훈

문화 트렌드
세상 가장 가깝고도 엄숙한 모자
세계인이 사랑하게 된 ‘오 마이 갓’